

건강 칼럼

성장기 어린이에게 위험한 '편도-아데노이드 질환'

편도는 일반적으로 혀 뒤, 목젢 옆에 위치하는 구개편도를 말한다. 아데노이드는 코의 맨 뒤쪽에 위치하는 인두편도를 의미한다. 편도와 아데노이드는 태어날 때 크기가 작지만 신체가 성장하면서 커진다. 10~12세 정도에 가장 큰 크기가 되고 이후 줄어든다.

소아의 편도와 아데노이드는 원래 성인보다 크지만 과도하게 큰 경우를 편도-아데노이드 비대증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목 속은 편도 때문에 막혀 있고 코 뒤는 아데노이드 조직에 의해 막혀 있다. 따라서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생기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또한 깊은 잠 때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의 양이 적을 수 밖에 없어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은 경우가 많고 귀와 연결되는 이관(유스타키오관)을 막아 중이염도 자주 생길 수 있다.

코로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므로 부비동염(축농증)이 잘 생기고 약으로 잘 낫지도 않는다. 코막힘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됨은 물론 오랜 기간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 턱이 작아지고 치아의 교합도 잘 맞지 않는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변

형될 수 있다.
▶편도를 제거하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감염에 대한 방어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3세 이상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없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커져 목에 이상을 일으키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편도는 입을 벌려 혀를 누르면 그 크기를 정확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아데노이드는 코 뒤쪽에 위치하므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코내시경이나 X-선 검사로만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성인에서 편도 절제 수술이 필요



여남경
강릉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한 경우는 어릴 때 매우 커져 있던 편도가 작아지지 않고 여전히 커져 있어 코끝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일으키는 경우 편도선에 자주 염증이 생겨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경우다.
또한 편도선 옆 공간에 고름이 고이는 편도주위농양이 생기는 경우에도 수술을 해야 하는데 편도주위농양은 심하면 고름이 목 주위 공간을 타고 신체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편도 표면의 작은 홈에는 편도결석이라는 것이 생겨 악취가 나는 작은 알갱이가 목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편도 내의 분비물과 세균이 쌓여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편도 절제 수술이다.
▶수술은 어떻게 하나?

수술은 대부분 전신마취 하에 시행되며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개 2~3일 정도 입원을 한다. 아데노이드의 경우 수술 후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미세흡입절삭기나 고주파절삭기 등을 이용해서 아데노이드를 거의 대부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재발율이 매우 낮아졌다.

편도 절제 수술의 경우, 편도 조직을 최대한 제거하고 상체에서의 출혈을 막기 위해 2주간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방법이 표준치료법이다.

최근에는 미세흡입절삭기를 사용해 편도조직 중 과도하게 커진 부분만 제거하는 PITA(Powered Intracapsular Tonsillectomy and Adenoidectomy)라는 수술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출혈 및 통증과 관련된 편도피막을 보존하므로 통증이 적고 수술 후 출혈의 빈도도 낮아 수술 후 3일째부터는 정상 식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남아 있는 편도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가 자라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수술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제언

생명과 재산 지키는 소화기·화재경보기

실화나 방화로 인한 주택화재 사건 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지역이겠거니, 남일 이겠거니 하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
전라북도에서 최근 3년 발생한 화재의 28%(5,183건중 1,433건)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재 건수 가운데 28%면 높지 않은 비율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을 따져보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의 67%(38명중 2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하는 모든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됐으며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스스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해야야 작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뿐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강제 하나고 묻는 사람들에게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대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미국 1977년, 영국 1991년, 일본 2004년, 프랑스 2011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7년 제도 기준 마련 이후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률 95%를 달성하는데 27년이 걸렸지만 사망자 수는 제도 시행 시점보다 무려 47%나 감소했다고 한다.
어느 누구나 집을 생각하면 원더, 안식처, 가족 행복 등 각자 다른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지만 궁극적으로 나와 내 가족이 있는 곳 내가 돌아갈 곳이고 지켜야 할 곳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김영철 군산소방서119안전센터 소방위

독자제언

더욱 빨라진 112순찰차 출동

통상 112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성 등을 따져 주변 지구대나 파출소 순찰요원들에게 출동 지령이 내려졌다.
최근 경찰은 민생현장 치안 강화와 근린생활 치안 확보를 위해서 선지령과 선응답 등 112 신고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해 관한 기능을 물론 최단거리순찰차를 출동시켜 끝난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12신고 총력대응이란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는 중요사건(코드,코드1)에 대해 선지령, 선응답, 타관 할출동, GPS자동도착, 형사, 교통 기능을 불문하고 시민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할때 112로 신고하면 최근접거리에 위치한 순찰차가 신고현장에 우선출동하고 추가적인 경력이 필요 시 형사, 교통, 기능, 관할을 불문 전 경력이 인체적으로 신고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9월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일환으로 관할주의를 버리니 현장 체감차이인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긴

급한 사건에는 형사, 교통 등 기능을 가리지 않고 관할이 다르더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도록 하면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 5월 영등대교에서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기존 원칙대로라면 광진경찰서에서 담당했을 일을 접근성이 좋은 남측 경찰서 관할 청담파출소에서 출동해 긴급 구조한 것이 좋은 사례다.
체감도착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고접수와 동시에 선지령을 내리는 비율은 지난해 8월 15.5%에서 12월 25.2%로 향상됐다.
출동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인근에서 자원에 현장으로 가는 선응답 비율도 같은 기간 27.2%에서 53.7%로 뛰었다. 긴급신고 선응답과 선지령이 시행된 긴급신고 전체 평균 도착시간보다 각각 15초(선응답), 9초(선지령)가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하준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사설

포트 홀 보수 서둘러야 한다

요 며칠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제 봄이다. 도로마다 교통 불편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야겠다. 지난 겨울철에 도로보수가 뜸했던 때문인지 도로 여기저기에 많은 흠집이 생겼다. 그중에는 오기는 차량을 위협할 만큼 큰 것도 있다. 포트 홀 말이다. 지금 포트홀이 있는 도로를 보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곳곳을 보면 포트홀 때문에 상처투성이 도로 구간이 적지 않다.

당국 관계자들은 저번에 포트홀 보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계자들의 생각일 뿐이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나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곳들이 많다. 예전에 두 번 세 번 지적했음에도 어떤 도로의 구간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예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거니와 포트홀이 늘 문제이다. 폭 파인 채로 있는 포트홀들을 속히 메꿔야 한다. 설마 무슨 사고라도 발생하라는 마음 자세는 곤란하다. 그런 자세라면 녹장 보수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당국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보수는 한두 번 대대적으로 하고 그쳐서 될 게 아니다. 포트 홀 보수 작업은 소규모라도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전주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포트홀에 대한 지적이 뜸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새로 생겨난 포트홀이 하나 둘이 아니다. 특히 평화동의 코오통아파트 뒤편 도로를 보면 상당히 깊은 포트홀들이 있다. 장승로처럼 교통량이 많지 않다고 해서 놓쳤는지 모르겠다. 속히 서둘러서 포트홀을 메꿔야겠다. 그리고 저번에 했던 말을 또 하거니와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더욱 좋다. 보수를 했어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도로 여기저기에 흠집이 생기기 마련이다.
당국은 이런 지적에 싫어해서는 안 된다. 보수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포트홀을 내버려 둔다면 나중에 더 깊은 웅덩이가 생길 게 뻔하다.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리는데 그걸 생각해야 한다. 운전자나 주행 중에 웅덩이를 피하려고 갑자기 차선을 바꾼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그만큼 높을 터이다.

이주결혼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이주 결혼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녀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주 결혼 여성들의 고달픈 속내를 들여 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는 비극적인 것도 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건의 대반은 한국인 남편의 구타와 시집 가족들의 학대이다. 이주 여성들의 문제를 이주 여성들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 있다. 어떤 남편은 아내를 극단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전북 지역의 결혼이민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도에 8,860 명이었고 2014년에는 9,051 명이였다. 짐작컨대 지난해 2015년에는 더 많은 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문화 가정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다. 문제를 포괄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한국인 남편의 억눌린 자존심도 존중하는 가운데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한다. 주변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인격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주 여성들에게 다들 관심을 가져야겠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전북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인 '다누리'의 보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보고를 들여보면 이주 여성들이 인권 보호의 시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달수백 건에 달하는 상담 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그 상담 건 중에는 정말 심각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녀들의 문제를 그녀들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지역 사회가 나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이주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 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이마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문화 가정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다. 문제를 포괄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한국인 남편의 억눌린 자존심도 존중하는 가운데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한다. 주변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인격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주 여성들에게 다들 관심을 가져야겠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dvertisement for '정론지' (Jeongnonji) featuring a silhouette of a sailboat on a stylized sea. The text promotes it as a platform for providing courage and hope to humanity, highlighting its commitment to quality journalism and community support. It mentions that it is a platform for providing courage and hope to humanity, and that it is committed to providing high-quality journalism and community support. It also mentions that it is a platform for providing courage and hope to humanity, and that it is committed to providing high-quality journalism and community support.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